

북

Books

거짓과 위장...‘야수의 욕망’을 읽어라

인간이라는 야수

토마스 뮐러 지음·김태희 옮김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심리분석관)가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그들의 세계가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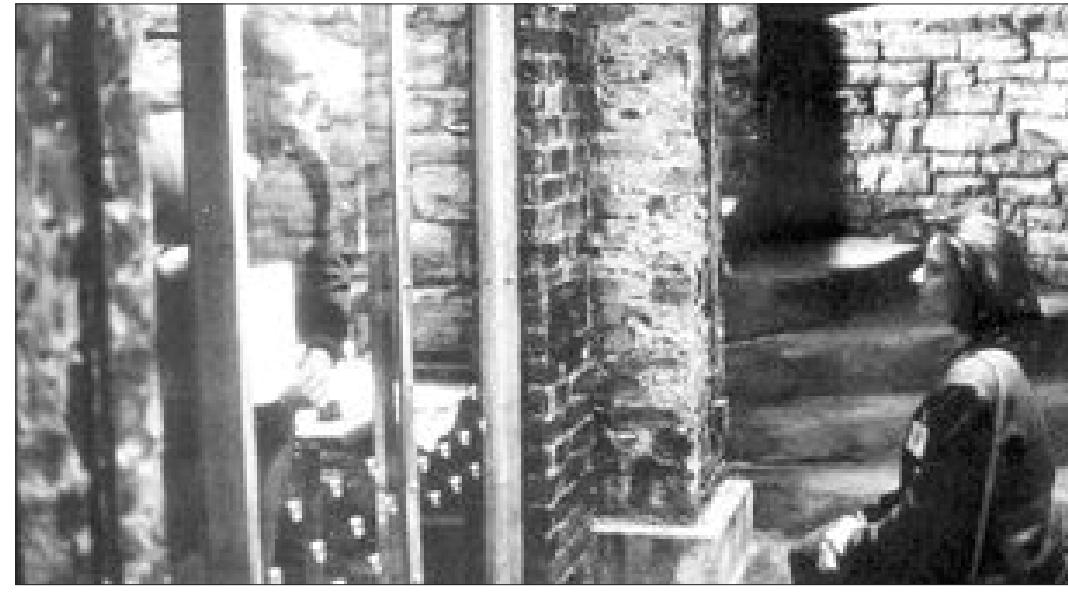
이와 관련 범죄심리학 분야의 타월한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야수’가 벅터워 출판됐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프로파일러인 마스 뮐러가 자신의 체험을 생생한 언어로 풀어 쓴 논픽션 현장 보고서다.

책은 뮐러가 1982년 경찰학교 입학하게 된 때부터 독일 함부르크 폴스비탈 형무소에서 복역중인 무기징역 수 루츠 리안슈트롬을 만난 2003년 10월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다. 그는 주상적인 심리학 이론이나 자신의 연구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신, 마치 한 편의 뛰어난 심리소설처럼 인간 욕망과 범죄의 함수관계를 촘촘히 재구성해 보여준다.

회대의 살인마 루츠 리안슈트롬과의 만남을 이야기의 근간으로 자신이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끌어내고 소름끼치는 범죄현장부터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범죄심리학 이론의 핵심, 야수를 기워내는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적 고찰까지 맷갈스럽게 버무려져 있다.

리안슈트롬과 차를 마시며 면담을 진행하던 중 뮐러는 1992년 11명의 매춘 여성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크 운터베거를 만났을 때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을 회상한다.

무방비 상태로 빠져든 뮐러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리안슈트롬에게 완벽한 독일어 문법을 구사하는 지적인 프란츠 폭스를 떠올린다. 폭스는 3년여 동안 오스트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폭탄



저자는 “프로파일러의 존재 가치는 인간을 야수로 돌변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소통을 통해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진은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장면.

테러 사건인 바이에른 해병군 사건의 범인이었다. 수많은 범행 현장을 누비고 연쇄살인범을 만나면서 저자는 공통으로 느낀 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바로 범죄자라고 해서 “나는 세 사람을 죽였다”라는 ‘카인의 징표’를 이마에 새긴 것도 아니고 ‘악이 아주 멀리 존재한다’고 믿는 것도 오류라는 점이다.

저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장하는 능력은 더 대단했다”고까지 회상한다. 또 끊임없이 야수의 발자국을 추적해 온 저자지만 범죄의 원인에 대한 그의 답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는 “어떻게 아홉 살 먹은 아이의 머리를 곤죽이 되도록 내리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계를 그저 조금 엿볼 수 있을 뿐이다.”고 말한다.

저자는 역으로 범죄자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욕망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청한다.

▲프로파일러=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과학수사 요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범행 준비와 실행, 시신처리 등 일련의 범죄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 범행 동기와 용의자 특징 등을 분석해 내고 신문(訊問)에도 참여하는 사람이다.

저자는 “인간의 잔혹함이 표출되는 계기나 과정은 대단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커진 불안과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 세상에서 벼러지는 순간 인간 속 야수의 본능이 깨어난다.”고 말한다. 결국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느냐가 범죄 예방의 키워드라는 것이다.

어려운 범죄심리학 이론 서가 아니라 한편의 추리 소설처럼 읽힌다. 〈황소자리·1만3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웃사이더가 본 철학

‘바람난 철학사’



일본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혼다 토오루가 쓴 ‘바람난 철학사’는 철학사를 정상성, 권력, 인기 있는 자 등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정상성, 억압, 인기 없는 자,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인형을 사랑한 데카르트, 사랑하다 내빼기의 달인 괴테, 여자에게 버림받고 자신을 신격화한 나체, 폭탄의 정신을 파헤친 프로이트….

“철학사는 폭탄사상과 킹카 사상의 투쟁의 역사”라고 본 저자는 플리톤, 헤겔 등이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을 형성하게 됐는지를 영화와 만화, 소설 등으로 설명한다.

〈애플북스·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처를 쏘라

현각 엮음·양언서 옮김

인간은 모든 현상과 이치를 규정하고 설명하려 한다. 많은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의 수많은 ‘앎’ 속에서 외로움을 수밖에 없다.

달라이 라마, 틱낫한, 마하

고사나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송산(崇山·1927~2004년) 큰스님은 알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 모르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설�했다.

그의 외국인 제자 현각 스님이 펴낸 ‘부처를 쏘라’는 송산 스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진리의 여행자들에게 남긴 승산 스님의 가르침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미국인인 현각스님은 큰스님의 법문과 강연,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들을 정리해 냈었다.

‘부처를 쏘라’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깨달으면 그르친다’는 제목으로 먼저 출간한 것을 한국어판으로 다시 낸 것이다.

‘부처를 쏘라’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임재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 정신에서 따왔다.

큰스님은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걸 모를 뿐,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큰스님이 제자들과 주고받은 삶의 궁극적 의문과 가르침이 서술되며 그의 행적과 수행 이야기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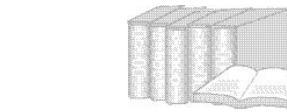
또 큰스님이 열반 전에 병고로 고통을 겪는 모습과 최초로 공개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독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편지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만백성을 다스릴 것인가’라는 질책과 함께 성찰, 단하, 관응스님 등 세 분께 가르침을 구하라는 글이 담겨있다.

이 편지로 인해 안기부 남산청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비하도 공개됐다.

한편 송산 큰스님은 1966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포교에 앞장서 32개국에 120여개의 선원(Zen Center)를 설립·운영하였으며 수많은 외국인 제자들을 길러냈다. 〈김영사·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공정무역 희망무역=한국여성연구원 김정희 객원교수가 아시아 지역 여성 사업가들의 공정무역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정무역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라는 패권적 패러다임에 맞서는 희망의 거래가 되는 이유를 말한다. 〈동연·1만3천원〉



▲나비 찾아 떠난 여행=제주도 나비박물관 포시케월드 김용식 관장이 쓴 나비 채집 40년 보고서. 어린시절 처음 나비를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낀 홀홀감에서부터 나비 변이 연구가로 성장해간 이야기까지 저자의 경험과 삶을 고스란히 담았다. 〈현암사·1만4천원〉



▲마네 그림에서 찾은 13개 퍼즐조각='풀밭에 서는 점심식사', '울랭피아' 등 여인의 고혹적인 표정으로 논란을 빚은 마네의 그림에 얹힌 스캔들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13가지 아이템으로 수수께끼 풀듯이 펼쳐낸다. 푸코, 비타리우, 프리드가 화가 마네를 본격 분석했다. 〈기파랑·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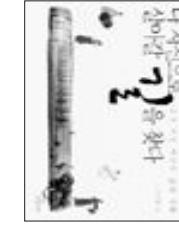


▲경제 비타민 2=김영아, 박지성을 만들어낸 위대한 습관부터 부자되기 위한 재무설계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경제 교양서다. 지난 2년간 방송된 KBS 2TV ‘경제비타민’ 내용을 정리했으며 방송에서 담지 못했던 정보들을 담았다. 불황기를 이겨내는 가족을 위한 재무 설계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티·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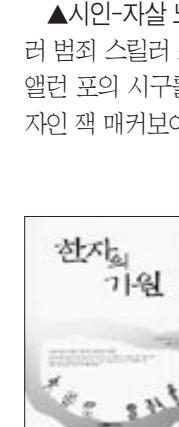


▲필적은 말한다 =강력법죄 전문 검사인 구본진씨는 ‘글씨는 뇌의 지문’이라고 말한다. 다년간 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필적학 지식으로 항일 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 유형을 분석했다. 다양한 근·현대 역사인물의 필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중앙북스·1만7천원〉

▲산책으로 만난 즐거운 생물학=독일의 생물학자 우르겐 브라터는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한다. 오랜 세월 산책을 하면서 발견한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의 특징 등을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일상과 과학의 세계를 넘나드는 유쾌한 기록이다. 〈살립·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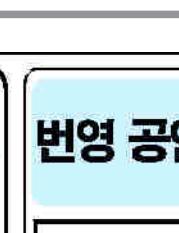


▲나 자신으로 살아갈 길을 찾다=역사학자 이능화선생은 기생을 두고 ‘해어회(解語花)’ 즉,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했다. 오늘날의 연예인에 준하는 지위다. 이지양씨가 사회적 글래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했던 조선시대 여성 ‘예인’ 12명의 삶을 조명했다. 〈종문화사·3만5천원〉



▲시인·자살 노트를 쓰는 살인자=해리 보시 시리즈 등의 베스트셀러 범죄 스릴러 소설을 쓴 미국 작가 마이클 코넬리의 초기작. 어드거 앤런 포의 시구를 모티브로 형의 죽음에 담긴 비밀을 풀는 신문사 기자인 잭 매커보이와 살인자의 심리를 치밀하게 그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원〉

▲한자의 기원=중국 갑골문화과 금문의 세계적 권리인 시라카와 시즈카가 1970년에 펴낸 첫 번째 저작물. 저자는 책에서 한자는 주술적·종교적 의미를 형상화한 상형문자라는 주장을 펼쳐 고문자학 연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다 미디어·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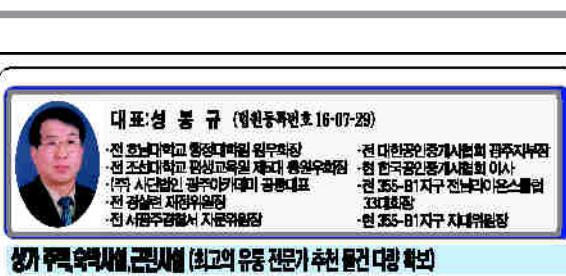


번영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8-5221

(구 상무대 정문)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부동임대업, 투자임대

• 토지 60평에 건물 150평

• 보증금 700만 원/월 3,000만 원·제 785억

• 토지 18평에 건물 150평

• 보증금 500만 원/월 2,000만 원·제 944억

• 토지 1200평에 건물 2,000평

• 보증금 1억 원/월 3,000만 원·제 1985억

• 토지 100평에 건물 150평

• 토지 100평에 건물